“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 1931년 세워졌다”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가 확인
비문 연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연구 진행
1931년 매일신보 기사 내용 동일
덕산면 주민에 의해 비문 세워져

신중일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그동안 언제 조성된지 알 수 없었던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宋滿空大禪師救恤頌德碑)’의 연원이 1931년으로 확인됐다.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상임위원장 도신 스님)는 “수덕사 만공기념관 옆에 위치한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이하 만공선사송덕비)’가 1931년 덕산면 주민들이 중심이 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3월 19일 밝혔다.

만공선사송덕비는 1999년 수덕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묵 스님(동국대 불교학술원장)과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이 마을에 묻혀있던 비석을 발굴해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하지만, 만공 선사의 공덕을 기리는 이 비석이 어떤 연유로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후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수덕사가 협약을 맺고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만공선사송덕비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들이 빠르게 이뤄졌다.

편찬위는 고신문아카이브에서 확보한 신문기사 중 1931년 5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에서 “정혜사 만공 선사가 덕산면 8개 리의 우박으로 인한 재난구제를 위하여 백미 17석(260원)을 베풀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덕산면 8개 리 수백호의 가구들이 12전(100전=1원)씩 모아서 선사의 송덕비를 ‘덕산면 대동리 홍성통로’에 건립하는 중”이라는 기사를 발견했다. 이에 편찬위 실무진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공선사송덕비의 내용과 당시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김민규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일부 파손이 됐지만, 비석의 뒷면에 새겨진 신미년은 1931년이고, 비석을 보수한 부분


수덕사 만공기념관 옆에 있는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의 모습.

에 가려진 글자와 마지막 6자는 소화 6년(1931)으로 볼 수 있다”며 “고휘도(HDR) 촬영을 통해 탁본하지 않고도 글자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수덕사에는 만공 선사의 유훈을 받들어 사리를 수습하지 않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며 “이러한 비석에 대해 만공 선사 당신은 부끄럽다 하실 것이나, 후손들에게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는 경허·만공 문도 사찰들의 지원 아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허록〉, 〈만공법어〉를 편찬·간행하고, 경허·만공 선사와 관련된 자료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자료집 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찬위 실무위원장 주경 스님(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은 “경허 선사께서 남긴 말씀 가운데 선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뽑아 〈경허록〉으로 간행하고, 만공 선사의 법어집은 기존의 번역을 다듬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 〈만공법어〉를 간행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더불어 경허·만공 선사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 자료집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찬위 상임위원장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은 “〈경허록〉과 〈만공법어〉의 편찬에 있어 현대적인 번역과 옛 스님들께서 남긴 시대적 분위기와 철학을 잘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조 혜명 잇는 정진, 대선사 추모하는 길”

덕숭총림, 원담 대선사 열반 16주기 추모다례

‘덕숭산 천진불’로 불렸던 원담 선사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20일 경내 대웅전에서 경허·만공 스님의 맥을 이은 ‘덕숭총림 제3대 방장 원담 대선사 열반 16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다례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송원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김종구 수덕사 신도회장과 본·말사스님들이 동참했다.

원담 선사의 제자인 설정 대종사는 “남아있는 후학들이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는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이 은사스님을 추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담 선사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맥을 세운 경허·만공 스님의 법맥을 계승했으며, 항상 자애롭고 천진하게 웃음을 띤 모습으로 인해 ‘덕숭산의 천진불’로 대중에 알려졌다.

한편, 수덕사는 ‘만공 대선사 탄신 153주년 다례’를 오는 4월 15일 오전 정혜사에서 봉행하고, 오후 수덕사 대웅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불교대학 36기·수현불교대학 7기 입학식

51명 · 25명 각각 입학
걸음마 학당에도 7명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운영 중인 전주 대표 신도전문교육기관 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스님, 금산사 주지)과 수현불교대학(학장 일원 스님)이 일제히 입학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화엄불교대학은 3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제36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생 51명을 대표한 김경옥 불자는 신입생 선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3월 18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열린 화엄불교대학 제36기 입학식.

화엄불교대학장 일원 스님은 “오늘 입학한 신입생 불자들은 배움을 어떻게 이웃에게 되돌려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불교에 정통한 강사님들을 초청해 불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여러 신행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완성도와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주혁신도시 금산사 포교당 수현사 수현불교대학도 3월 20일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입학식을 거행했다. 수현불교대학 7기에 25명이, 불교 걸음마학당 1기에 7명이 입학했다.

학장 일원 스님은 신입생들의 입학을 허가 한 후 입학 치사를 통해 “여러분이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며 “내 마음이 나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항상 살펴서 궁극에는 성불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을 마친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은 불교개설, 사찰안내, 부처님 생애, 예불문 강의, 반야심경 강의, 불교기초교리, 찬불가 배우기, 전통등 만들기 등의 강좌를 진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대 ‘불동이들’ 수계법회… “참불자 될게요”

3월 16일 군산 관음사서

지난해 11월 재창립법회를 가진 군산대 불교동아리 ‘불동이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군산대 불교학생동아리 ‘불동이들’(회장 김윤하)은 3월 16일 군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군산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도천 스님(관음사 주지)과 종하 스님, 설광 스님, 선운사 포교국장 해봉 스님, 지태 스님과 관음사 신도, 불동이들 회원 10명이 동참했다.

전계아사리 종하 스님은 “계라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라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오계를 설했다.

이날 계를 받은 10명의 대학생은 연비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성실하게 신행활동에 나설 것을 발원했다.



군산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도천 스님은 “새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앞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정식 동아리로 등록된 만큼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 등 적극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각심’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동이들’을 이끌고 있는 회장 김윤하 학생(철학과 4)는 “오계를 수지하면서 이제 비로소 불자가 된 느낌이다”며 “동아리방도 새로 생기고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문빈정사·자비신행회, 자비의 떡 나눔

3월 14일 동구 재활용사업장서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는 (사)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3월 14일 ‘법공 스님의 행복나눔 방앗간’을 개설하고, 동구 재활용 사업장을 찾아 작업자 140명에게 떡과 음료를 전달했다.〈사진〉

행복나눔 방앗간은 문빈정사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떡으로 만들어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법공 스님은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들에



게 전하고자 행사를 계획했다”며 “각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복나눔 방앗간은 이날 쓰레기 수거업체에도 방문했으며, 향후 환경미화원 등을 찾아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소외계층에 자비의 쌀 전달

경로당 등에 쌀 1000kg 기부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가 사회복지법인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진안읍 지회장을 겸하고 있는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3월 21일 쌍봉사 큰법당 앞마당에서 자비의 쌀 1000kg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진안 제일약국도 쌍봉사 자비나눔에 팥양갱 100세트(100만원 상당)를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진안읍에 50포대, 진안군 10개 면에 각 5포



대씩 홀몸 어르신과 80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전달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비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쌀과 팥양갱을 받으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계사, 고산 대선사 열반 3주기 다례재

“방장실, 기념관으로 설계”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고산당 혜원 대선사 열반 3주기를 맞아 3월 20일 경내 부도전과 팔영루에서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 전계제자 덕민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쌍계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산 스님이 주석하시던 방장실은 먼 여행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기념관을 설계중”이라며 “앞으로 쌍계사 가람수호



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산 선사의 사리분배 봉정식도 진행됐다. 사리는 석왕사, 혜원정사, 보리암, 연화사, 용화사, 문수암에 분배됐다. 추모 다례재에 앞서 대중스님들은 영모전을 참배하고 고산 선사의 다비식 당시 재를 묻은 나무 3곳과 부도탑 가는 길 ‘불식촌음’ 안내 표지석을 제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합동용왕대재

3월 17일 충주 중앙탑공원서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은 3월 17일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용왕대재를 봉행하고 충청도민과 국가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성 스님은 “부처님 탄생하실 때 연못에 있던 9마리 용이 물을 뿜어 태자의 몸을 씻겼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불교에서 용은 불법과 중생을 지키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한다”면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왕대재를 통해 사회 대중들과 한국불교가 소통하고 가까워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법



문을 통해 “모든 이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마련된 이 자리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자리기도 하다”면서 “법석을 열어준 충북교구 종무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은 오는 9월 28일 제2회 합동용왕대재를 충북 청주 무심천 일원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창 선운사불교대학 제3기 졸업식 봉행

3월 16일 선운교육문화회관서

고창 선운사불교대학(학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이 3월 16일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선운사 불교대학 제3기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선운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서창수 불자 등 16명의 졸업생은 학장 경우 스님으로부터 졸업장과 조계종 신도 ‘부동’ 품계증을 받았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서창수·이지훈 졸업생이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학장상은 김인숙· 송유진 졸업생, 교구본사주지상은 김익·윤종기 졸업생, 신도회장상은 이종천 졸업생, 원력상은 김광남 졸업생외 5명, 전북포교사단장상은 장혁진·유민정 졸업생이 수상했다.

선운사불교대학장 경우 스님은 “지금까지 익히고 배우는 것은 불자



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고, 진정한 배움의 시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며 “실천이 없는 배움의 결과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윤종기 불자는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의 진리를 저마다의 신심으로 승화시켜 불국정토와 전법과 포교,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